

## 천문유초에 그려진 새로운 천문도와 고분벽화

양홍진, 박명구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조선시대 대표적 천문학 서적인 천문유초(天文類抄)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28수의 별자리를 이용해 서양의 황도 12궁처럼 하늘에 동물의 모양을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양의 경우는 지금까지 점성술이나 천문학의 상징적 모양으로 많이 알려져 왔었지만 우리의 것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동양의 28수를 이용한 하늘의 모양을 천문유초의 자료와 고분벽화에 그려진 그림을 통하여 복원하였다. 이들이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고유의 별자리를 통해 하늘에 그려본 그림, 즉 천문도라는 사실은 오랜 천문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신도(四神圖)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그림이 단지 방위를 나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천문도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부터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사신도와 여러 동물들과 별자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고분벽화의 천문학적인 의미도 살펴보았다.